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4.4(금) ~ 2025.4.10(목)

제공일시 2025 4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4.4(금) ~ 2025.4.10(목)

제공일시 2025 4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미국 104% 對 중국 84%'... 트럼프 대응에 시장 주목

- 관세 104%대 84%,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돌입함
- 9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 사무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중국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6개 미국 기업을 추가했으며, 수출 통제 목록에도 12개 미국 기업을 추가함
- 이는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4%로 높인 2차 보복이 4월 9일부터 발효된 데 따른 조치임
- 중국의 항전으로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짐

[\(한국경제 2025.4.9\)](#)

2. EU, 2040 기후 목표 달성 위해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 검토

- 유럽연합(EU)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90% 감축을 골자로 한 새 목표를 여름 이전 발표할 계획이나, 역내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국제 감축분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유엔 파리협정 6조에 따라 브라질 산림 복원 등 해외 프로젝트 감축 실적을 자국 목표에 포함하는 방식이 거론됨. 다만, 국제 크레딧의 환경 무결성 문제 등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촉구함

[\(로이터통신 2025.4.8\)](#)

3. 중국, 첫 녹색국채 발행... 美 침체 틈타 기후금융 주도권 노린다

- 중국이 글로벌 그린본드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첫 녹색국채(sovireign green bond)를 발행함. 특히, 미국에서는 기업 발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60억위안(약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함. 조달된 자금은 중국 내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임
- 위안화 표시 채권인 녹색국채는 홍콩에 상장되며, 런던증권거래소에도 거래 신청이 이뤄짐
- 이는 유럽의 지속가능 채권 주요 투자자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영국과의 금융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임팩트온 2025.4.3\)](#)

국내 정책

1. 전기차 구매 보조금 늘어난다... 車·부품 정책금융은 2조 증액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함. 한미 양국 간 협력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호황기 수주에 대비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확대함
-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함
-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자동차 산업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 관세 피해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 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함
- 조선업 지원에도 나서. 정부는 RG 발급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잔여 한도 내에서 RG 발급을 확대함

[\(서울경제 2025.4.9\)](#)

2.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640만톤 줄여라”... 과기정통부 총력 모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640만톤 감축을 목표로 ‘이니셔티브’를 출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하고 ‘CCU 중점 추진전략’을 공개함
- CCU 이니셔티브 운영체계는 올해는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2026년부터는 기업 중심으로 가져갈 계획임
- R&D는 단기로 △CCU 중점연구실 지정·운영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가동(2025년 4개 과제 40억원, 5년간 470억원 규모) 등을 추진함. 중장기적으로는 △CCU 대형 실증사업 5건 △CCU 미래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

[\(지디넷코리아 2025.4.4\)](#)

3.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첫발... ‘넷제로 챌린지X’ 9개사 제품화 지원

- 기후테크 스타트업 9개사가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지원 기업에 선정됨
- ‘모듈형 탄소자원화 시스템’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에 대한 제품화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될 예정임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특허청은 ‘넷제로 챌린지X’ 첫 지원기업으로 △넥스트테크 △미래엔피아 △바이러스썩 △비욘드오션 △비티에너지 △에이랩스 △오슬로 △이엔에프에너지 △파이네코 9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힘
- 최종 선정된 9개사는 혁신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제품화 해법, 시작품 제작과 검증, 지식재산을 통한 제품 보호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음

[\(전자신문 2025.4.3\)](#)

글로벌 기업

1. 도요타 2027년까지 전기차15종 투입... 美 등으로 생산거점 확대

-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027년까지 자체 개발한 전기차(EV) 약 15개 차종을 투입하고 연간 생산 대수는 100만대가량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 도요타는 현재 일본과 중국에만 둔 EV 생산 거점도 미국, 태국, 아르헨티나 등 모두 5곳으로 늘려 관세나 환율 변동 위험에 대응할 방침임

[\(연합뉴스 2025.4.7\)](#)

2. 테슬라 “건식공정 배터리 연내 상용화”... 韓 배터리 예의주시

-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올해 안에 차세대 건식 전극 공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배터리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
- 테슬라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기존 대비 배터리 생산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현재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2028년을 건식 공정의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보고 있어 테슬라가 실제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약 3년의 기술 격차가 발생하게 됨

[\(천지일보 2025.4.9\)](#)

3. MS, 글로벌 데이터센터 속도조절... AI 투자에도 제동 걸리나

-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과 해외 주요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MS가 최근 미국 내 여러 주와 인도네시아, 영국, 호주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협상을 중단하거나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함
-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MS가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신호로 해석됨

[\(헬로티 2025.4.4\)](#)

4. 미쓰비시 파워,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협력 사우디 발전소에 가스터빈 공급

- 미쓰비시중공업(MHI)의 전력 솔루션 브랜드인 미쓰비시 파워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독립 발전소(IPP) 프로젝트 2건에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계약을 잇따라 체결함. 특히, 이번 계약은 한국 기업인 두산에너지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음
- 지난 2일(현지시각) 중동 현지 언론 자위야에 따르면, 미쓰비시 파워는 루마-1 및 알-나이라야-1 발전소 프로젝트에 최첨단 M501JAC 가스터빈 6기와 발전기, 보조 장비를 공급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4.3\)](#)

국내 기업

1.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공장 태양광 프로젝트 착수… 중국 JA솔라 모듈 활용

- LG전자가 글로벌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돌입함
- CJ올리브네트웍스로부터 설계·조달·시공(EPC)을 지원받고, 중국 JA솔라의 태양광 모듈을 활용함. 오는 6월 준공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청정 전력을 확보함
- 9일 JA솔라에 따르면, LG전자는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에서 17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시작함
- 이번 태양광 사업은 LG전자와 CJ올리브네트웍스 베트남법인, JA솔라의 전략적 협력으로 추진됨. CJ올리브네트웍스 베트남법인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EPC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JA솔라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인 딥블루 시리즈를 공급함

[\(더구루 2025.4.9\)](#)

2. 한화, 스페인 산로케에 930만 유로 투자해 15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 한화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자치주 카디스 지역 산로케 시에 총 930만유로(약 151억원)를 투자해 1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3곳을 건설함. 한화는 안달루시아 자치주 산업부에 각각 5MW 용량의 '김치 솔라' '가르비 솔라' '미스트랄 솔라' 프로젝트를 별도로 제출함
- 해당 발전소들은 산로케 구시가지 북동쪽에 위치한 라 독토라 지역 부지에 건설될 예정임. 이번 프로젝트는 총 833헥타르 부지에 조성되며, 각 발전소는 2만8000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갖추게 됨

[\(글로벌이코노믹 2025.4.9\)](#)

3. SK오션플랜트 유럽 해상풍력 시장 진출 성공

- SK오션플랜트는 독일 북해에 있는 1800MW 규모 고압직류송전 변환소(HVDC Converter Station) 건설 프로젝트에 핵심 컴포넌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힘. SK오션플랜트의 첫 유럽 해상풍력 시장 진출 성과임
- SK오션플랜트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

[\(서울신문 2025.4.3\)](#)

4. 포스코홀딩스, 지질자원연구와 핵심광물 기술 개발 MOU 체결… “공급망 안정화 나선다”

- 포스코홀딩스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핵심광물 기술 공동개발에 나섬
- 최근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지질자원연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핵심광물 탐사부터 추출 기술개발까지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함

[\(이데일리 2025.4.7\)](#)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4.4(금) ~ 2025.4.10(목)

제공일시 2025 4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트럼프, AI 데이터센터 건설 본격 추진... 청정에너지 빠진 계획에 민주당 반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부지 활용 계획을 본격화했음.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던 청정에너지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진 채 진행되면서, 민주당은 기후 정책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미 에너지부는 연방 소유 부지 16곳을 선정해 민간 기업과 함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위치한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주의 원자력 단지, 켄터키-오하이오주의 우라늄 농축 시설 부지 등이 포함됐음. 데이터센터는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함

-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AI 패권 경쟁은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라며, “에너지부는 민간 파트너와 함께 인프라를 조속히 완공하고 전력망 설계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음.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도 “AI 중심 사회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연방 자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음. 다만, OSTP가 이번 계획을 공식 승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에너지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 건설에 참여할 민간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에너지부는 각 부지의 특성과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설계와 에너지 공급 방식을 함께 구상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효율 서버나 냉각 시스템 같은 차세대 하드웨어 기술 개발도 지원할 방침임

- 특히, 이들 기업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를 포함한 에너지부 산하 주요 국립연구소들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됨. 이는 연방 정부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기후 기술 역량을 민간과 공유해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임

-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상에 있음. 바이든은 1월 국방부와 에너지부 소유 연방 부지를 민간에 임대해 AI 데이터센터와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를 동반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내무부는 지열·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힘.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는 전 정부의 행정명령에 있던 청정에너지 연계 의무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음

- 특히, 일부 데이터센터 건설 후보지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부지로 지정됐던 곳인데 용도가 전환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에 걸친 청정에너지 부지를 AI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70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수소 허브 프로그램 중 4곳의 자금 지원 중단도 검토 중임

- 민주당 상원의원 25명은 2일(현지시각) 크리스 라이트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승인한 청정에너지 예산은 행정부가 정책적 선호에 따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음. 서한을 주도한 마틴 하인리히, 패티 머레이 의원 등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당적 인프라법(BIL)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책정된 청정에너지 예산이 AI 인프라로 전용되거나 삭감되는 것을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임팩트온 2025.4.7\)](#)